

## 왜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신 광 영\*\*

이 논문은 2006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2016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제1당으로까지 급부상한 스웨덴 극우주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D)의 급성장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스웨덴 민주당이 1988년 창당 초기부터 반(反)이민 정책을 핵심적인 노선으로 제시하였지만, 충분한 지지 획득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 대한 높은 불신 속에서 2006년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고, 2014년 이후 ‘유럽의 이민 위기’를 기회로 지지도를 크게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점을 경험적으로 밝힌다. 동시에 스웨덴 민주당은 기존 신자유주의 우파와는 달리 스웨덴만의 복지를 옹호하는 ‘복지 쇼비니즘’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논의한다.

**주제어:** 스웨덴 극우주의, 스웨덴 민주당, 유럽 이민 위기, 복지 쇼비니즘, 이민 정책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866)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1. 문제제기

스웨덴 극우주의의 역사는 길지만, 오랫동안 사회운동 차원이나 정당 차원에서는 주변적인 지위를 면치 못했다(Larsson, 1991; Loxbo, 2010; Oja and Mral, 2013: 278-281; Rydgren, 2002).<sup>1)</sup> 1990년 일시적으로 극우정당인 신민주주의 당(Ny Demokrati)이 국회 진출에 성공하였으나, 그 다음 총선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여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극우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1988년 창당한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이 2010년 총선에서 5.7%의 지지를 얻어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루어졌다. 더구나 2014년 총선에서는 12.9%의 지지를 얻어 국회 의석 49석을 차지하면서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11개월 후인 2015년 8월 14-17일 YouGov 여론 조사에서는 스웨덴 민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25.2%의 정당 지지를 얻어, 사민당 23.4%와 보수당 21.0%를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sup>2)</sup> 이후에도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면서, 20%대의 지지를 유지하여, 사회민주당, 보수당과 함께 제1당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민주당이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여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와 함께 “1당 우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Pempel, 1990).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사회민주당의 연속적인 집권이 이루어져서 사회민주주의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76-1982, 1991-1994년, 2006-2014년 동안 보수당이 승리하여 보수 연정을 구성하였고, 더구나 2010년 스웨덴 민주당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할 정도로 사회민주당 중심의 정치 지형이 변화했다. 이제 스웨덴은 복지제도의 약화와 더불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더 이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스웨덴 예외주의(Swedish exceptionalism)”

1) 이전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의 득표율은 1988년 0%, 1991년 0.1%, 1994년 0.4%, 1998년 0.4%, 2002년 1.4%, 2006년 2.9%에 불과하였다.

2)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총선 투표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https://yougov.se/news/2015/08/20/sd-ar-sveriges-storsta-parti/2016년> 9월 10 접속)

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Neergaard, 2015; Rothstein, 2014; Rydgren, 2002; Rydgren and Ruth, 2011; Widfeldt, 2008).

안토니오 엘리나스(Antonio Ellinas)는 스웨덴 민주당이 사르토리(Sartori)가 주장한 “적절성의 문턱(threshold of relevance)”을 넘어서 확고한 정당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Ellinas, 2010: 15-17). 제1단계에서는 1988년 창당에서 2006년까지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단계였고, 2006년 총선에서 5.7%의 지지를 얻으면서 1차 문턱을 넘어섰다. 2010년 기성 정당들의 심한 견제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제2차 문턱을 넘어서 상당히 안정된 기성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2010년 총선에서 기존 원내 정당들인 좌파와 우파 정당들은 모두 스웨덴 민주당을 “부랑자 정당(pariah party)”으로 간주하고 정치권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Jungar 2015). 사민당을 포함해서 보수당까지 의회에 진출한 기존 7개 정당들은 모두 스웨덴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총선 이후에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공표를 하였다. 기존 스웨덴 정당 정치의 틀에서 벗어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제도권 정당들이 모두 스웨덴 민주당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한 것이다. 다당제 연정체제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에 기반을 둔 계급 투표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스웨덴에서 계급 투표가 약화되었고,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 행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보수당들과 진보 정당들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는 반면,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Minkenberg and Pytlas, 2013).

그렇다면,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 극우주의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인가? 스웨덴 민주당은 기존 우파 정당들과 얼마나 다른가? 이민과 EU에 반대하는 정치 노선 이외에 상당수 스웨덴 사회에 존재하는 극우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스웨덴 극우주의의 속성은 스웨덴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의 분석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극우주의는 정당이라는 조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극우 조직 활동이나 혹은 여론조사나 투표 행위를 통해서도 표출된다. 극우주의의 공급자인 스웨덴 민주당과 수요자인 유권자들 간의 상호작용

용을 통해서 극우주의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고, 서베이 조사 자료인 Eurobarometer 자료,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와 스웨덴 선거 출구조사(VALU-SVT Exit Poll) 자료를 분석하여 스웨덴 극우주의의 성격을 분석한다. 먼저,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극우주의가 시기적으로 성격을 달리하였고, 극우주의에 대한 지지 이유도 시기적으로 달라졌을 논의한다. 그 다음, 스웨덴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민 반대 정책이 지니는 이념적인 속성이 최근 ‘유럽의 난민과 이민 위기’와 맞물려 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은 강화된 보수주의를 내세우는 기본의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복지 쇼비니즘”과 “인종주의적 반이민주의”를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극우주의’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복지국가 논의와 극우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논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 2. 스웨덴 민주당 성격 논쟁

사회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등장한 스웨덴 민주당은 얼마나 극우적인 정당인가? 최근 스웨덴 시민당 당수이자 집권 연정의 수상인 스테펜 뢰벤(Stefen Löven)은 공개적으로 스웨덴 민주당이 나치와 인종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TV 논쟁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백인 우월주의 운동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Roden, 2016).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로트(Nicholas Aylott)는 스웨덴 민주당이 나치로 분류되는 것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스웨덴 민주당을 나치 정당이라고 보았다. 현재의 스웨덴 민주당이 과거 극우주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신생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뿌리는 1991년 스웨덴 극우주의 정당인 신 민주당(Ny Demokrati)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니치 비외르크만(Li Bennich-Björkman)은 스웨덴 민주당은

극우정당이 아니라 중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민족주의-코스모폴리탄주의 균열은 전통적인 좌우의 틀과는 다르며, 민족주의 색채를 띠며. 동시에 사회적 보수주의를 내세고 있다는 점에서 극우주의 정당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Roden, 2016).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스웨덴 민주당이 기존 스웨덴 정당들과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웨덴 민주당은 철저하게 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EU 탈퇴와 UN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의 국내 영향력 차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통화 주권과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내세우고 있다.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UN이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고자 하였을 때도, 기성 정당들은 모두 스웨덴의 참전을 지지했지만, 스웨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였다(Doeser, 2014; Edgell, 2016: 177-180). 기성 정당들은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에 의한 인종 청소와 같은 대량살상을 막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스웨덴 민주당은 외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개입에도 반대하였다.<sup>3)</sup> 압도적인 여론이 참전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민주당은 리비아 내전에서 스웨덴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할 권리가 없다고 반대하였다.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 민주당의 입장에서 미국, NATO와 UN의 리비아 내전 개입은 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본 것이다.

둘째, 기성 정당들이 모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스웨덴 민주당은 철저하게 반이민(anti-immigration)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자들을 스웨덴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거나 혹은 스웨덴 사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 요인으로 본다. 2000년대 들어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스웨덴의 관대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3) 보수 연정의 수상 레인펠트(Reinfeldt)는 리비아의 일반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좌파당도 1973년 UN의정서를 지키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좌파당은 지상군의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Doeser, 2014).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 민주당 지도자인 지미 오케손(Jimmie Åkesson)은 이민자들의 증가가 “인민의 집”인 스웨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Hellström 2010; Widfeldt 2008). 2014년까지 중도 우파 정권까지도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지속했지만, 2014년 집권한 중도 좌파 정권은 2015년 급증하는 반이민 여론에 밀려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을 택했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도가 2015년 하반기 20% 정도 높아지면서, 중도 좌파 연정도 이민 정책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었다(Johnson and Ahlander 2015).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 정권은 2015년 11월 이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경 통제와 이민자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회민주당은 녹색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정서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2014년 8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2015년 19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것은 대량 이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현실을 반영한 이민 정책의 변화였다.

셋째, 스웨덴 민주당은 기성 정당들과는 달리 조직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하는 민중주의적(populist)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전략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당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2006년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 보도가 1%도 되지 않았던 상황과는 달리, 2010년 선거에서는 사민당과 보수당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보도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좌도 우도 아닌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정부는 스웨덴 민주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디어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스웨덴 민주당의 변화에 관한 보도들이 스웨덴 민주당의 노출 빈도를 높였다(Strömbäck, Jungar and Dahlberg, 2016: 76-78).

그렇다면, 스웨덴 민주당은 극우주의 정당인가?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우익 민중주의(right-wing populism)(Oja and Mral 2013), 극우(extreme right 혹은 far right)(Widfeldt, 2015), 급진 우익(radical right)(Rydren, 2013). 급진 우익 민중주의(Jungar & Jupskås, 2014; Mudde 2007; Rydgren 2006) 등이 스웨덴 민주당의 논의에 등장하였다. 우익 민중주의는 민중주의(populism)의 논의 내에서 ‘우익’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민중주의는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제도권

정치에 반감을 갖는 특징을 지닌다(Pelinka, 2013: 4).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은 민주주의가 조직에 기반을 둔 제도권 정치 대신에 직접 대중에게 호소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급진 우익이라고 규정하는 접근은 스웨덴 민주당이 “인종 민족주의(ethno-nationalism)”를 내세우며 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스웨덴 민족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내세운다는 점을 강조한다(Rydren, 2013: 2-3). 급진 우익은 이민에 반대하며, 다문화주의를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국제화에 반대하며, 민족 문화와 민족 정체성 확립을 도모한다.

극우주의는 3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째는 사회문화적 극우주의이다. 이는 전통적인 극우주의로 민족의 우월성이나 순수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타 민족을 배제하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극우주의는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극우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인종주의와 연계되어 다른 인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경제적 극우주의이다. 이는 감세, 탈규제, 공공부문 축소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내세우지만, 세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기존의 스웨덴 우파 정당들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의 유입과 외국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Lubber et al. 2002). 경제적 극우주의는 스웨덴에서 주변적인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세 번째는 정치적 극우주의이다. 이는 정치적 좌파에 대한 반발로 반공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시장규제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유럽 좌파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 극우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사회문화적 극우주의가 가장 강한 지속성을 지닌다. 사회문화적 극우주의는 생활세계에서 형성되어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적 극우주의는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제적 극우주의는 경제 불황기에 확산되는 특징을 지닌

다. 이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극우주의는 냉전 체제 하에서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매카시즘이나 제3세계 독재정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극우주의는 반공을 내세우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의해서 자주 동원되는 극우주의였다.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정치적 반공주의는 크게 약화되었다.

현실에서 극우주의는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가 두드러진 요소가 되는가는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국면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의회에 진출했던 신민주당(Ny Demokrati)은 경제적 극우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민주당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당내 지도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는 2000년 신민주당의 해산으로 귀결되었다(Widfeldt, 2015: 176-180). 사회문화적 극우주의가 스웨덴 민주당 등장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유사한 극우주의 강령과 담론이 등장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여, 의회 내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부재하였던 ‘스웨덴 예외적인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극우주의를 지지하거나 극우주의에 호응하는 유권자 즉 극우 담론의 수용자 혹은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은 지지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정당의 성격은 당의 강령과 주장 분석이 아니라 선거 캠페인과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과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과 속성의 분석을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3. 스웨덴 극우주의: 정치적 불신과 이민 반대

유럽의 극우주의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주의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극우주의 전통이 취약하여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신광영, 2015; Widefeldt, 2015). 주된 이유는 기존의 다양한 진보 정당들(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과 보수 정당들(보수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 인민당)이 이미 정치 공간을 장악하고 있어서, 극우 정당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2014년 총선에서는 지지를 두 배 이상 더 얻어 제3당으로 부상한 것은 스웨덴 정치사에서 대단히 새로운 사건이었다.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형성된 정치적 균열인 좌파와 우파의 정당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적 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세기 유럽의 정당체제는 오랫동안 두 가지 사회적 균열인 계급 균열과 종교 균열을 근거하여 지속되었다. 립셋과 로칸은 이를 “결빙된 정당체제(frozen party system)”라고 불렀다(Lipset and Rokkan, 1967: 50). 좌파-우파 정치는 이념적으로 산업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좌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우파는 시장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Przeworski, 2003 ch.1).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등장은 대공황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었다면, 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인한 서구 경제위기에 대한 우파의 대응이었다.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서구 정치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국가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균열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세계화(globalization)의 형태로 대두되었다. 동구권 붕괴로 지구적 자본주의가 탄생하였고, 세계화로 자본, 노동과 상품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규제 완화와 국가 부문의 축소를 가져왔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세계화는 1992년 유럽 지역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생이다. 이는 유럽화(Europeanization)라고도 불리는 세계화의 유럽 버전이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기반을 둔 유럽연합의 탄생은 유럽 지역 내 자본, 노동과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경

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15개국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세계화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집단적 대응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에 기대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두 가지는 차등적 세계화와 새로운 정치적 균열이었다.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불이익을 겪는 집단이 형성되어, 세계화의 차등적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EU 회원국이 되면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경제위기의 극복이 빠른 나라들(오스트리아, 독일과 스웨덴)으로의 인구 이동이 크게 이루어졌다(Eurofound, 2014: 2). 이러한 변화는 “소셜 덤핑(social dumping)”과 “복지 투어리즘(welfare tourism)”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소셜 덤핑은 고용주들이 저임금으로 동유럽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는 고용 방식을 지칭한다. 복지 투어리즘은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복지 후진국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스웨덴에서 초기부터 유럽 연합 가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컸고, 가입 이후 소셜 덤핑과 복지 투어리즘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주의(Euroscepticism)는 더 증폭되었다(Sunnus, 2004; Aylott 2008). 이는 최근 영국의 EU 탈퇴에 자극 받아서, 스웨덴 EU 반대자들이 스웨덴 정치권에 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U에 대한 여론도 대단히 악화되어, 2016년 4월 스웨덴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32%)보다 탈퇴(38%)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Loc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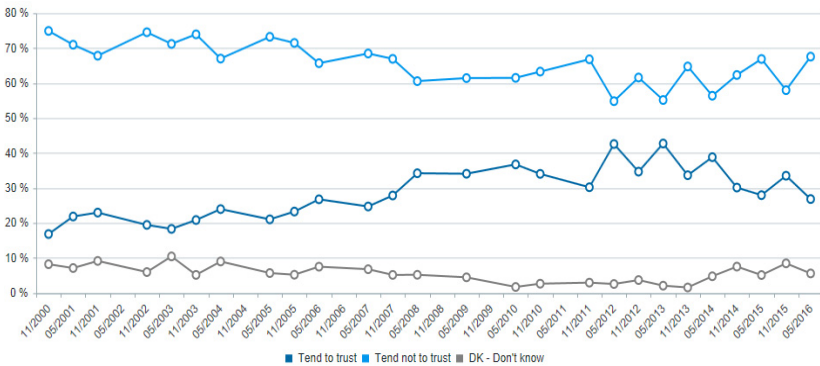
### 3.1 정치 불신

1990년대 경제위기와 1995년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갈등은 스웨덴 내 기존 정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1991-1994년의 스웨덴 경제위기는 1983년 사민당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이루어진 세계 금융시장과의 통합 결과였다. ‘11월 혁명’이라고 불리

는 금융개혁으로 대출 한도 폐지와 은행 간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였고, 이는 금융위기를 낳았다. 조세제도와 맞물려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이루어졌고,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Englund, 1999; 신정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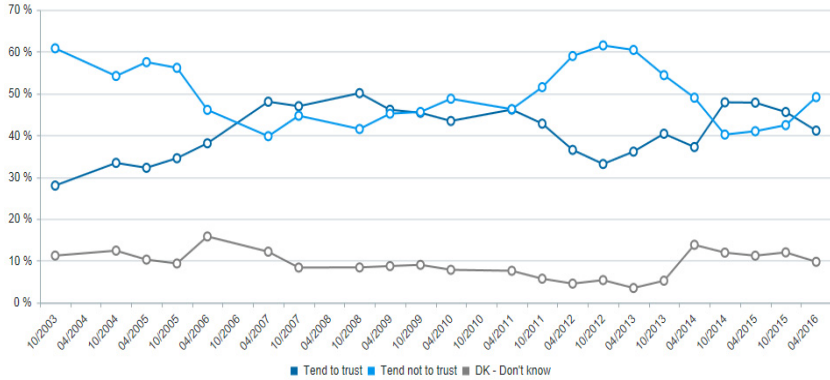
2000년대 스웨덴 정치의 특징은 “만성적인 정치 불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Eurobarometer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에 대한 신뢰도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서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60-70%가 정당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스웨덴 유권자의 높은 정치 불신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가 국내 정당들에 대한 신뢰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총선 직후인 2010년 11월 Eurobarometer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34%이었고, 2014년 총선 직후에는 더 낮아져 30%에 불과하였다. 이는 스웨덴에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스웨덴의 정당에 대한 신뢰도 추이 (2000-2016)



자료: Eurobarometer, 각 년도

<그림 2> 스웨덴의 EU에 대한 신뢰도 추이(2003-2016)



자료: Eurobarometer, 각 년도

### 3.2 이민위기

“유럽의 이민 위기”는 스웨덴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이민 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관대하였기 때문에, 스웨덴으로 대량의 이민자(난민 포함) 유입이 이루어졌다. 스웨덴 이민은 지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중동의 이란-이라크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1980-1989년 3만4천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29,000명의 이라크 이민자들이 스웨덴으로 유입되었다. 1989-1992년 동구권 붕괴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유입되었다. 2001년 스웨덴이 쉐겐(Schengen) 조약에 가입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34,000명의 이민자들이 스웨덴으로 몰려들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 EU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2/3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 4개국에 집중되었고,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스웨덴에서 가장 높았다(Townsend 2015: 1-2). 2015년 한 해 동안 스웨덴 망명 신청자는 162,877명에 달하였다. 스웨덴의 이민 정책이 관대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곧 바로 스웨덴 이민자의 급증을 낳았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스웨덴 국민 가운데 외국에

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비중은 2000년 11%에서 1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020년에는 이민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4)</sup>

이민/난민 이슈는 이민/난민의 증가로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거나 우려하는 집단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들 간의 차별적인 반응을 가져왔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먼저, 이민/난민의 성격이 시민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민자들의 출발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민/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대응이 달라졌다. 유럽, 동유럽,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이민/난민은 각기 스웨덴 시민들의 다른 반응을 낳았다. 다른 하나는 이민/난민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의 성격이다. 불이익의 내용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 문화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극우주의가 스웨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극우주의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동원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민/난민의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또한 극우정당의 이념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민자 수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을 낳았다. 전통적인 계급 균열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균열이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간극이 계속 커졌다. 특히 2006년 보수당 정부가 실업보험과 조합비 납부를 분리시키면서, 노조 조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민 노동자들의 경우는 노조 가입이 현저하게 더 하락하였다(Kjellberg, 2011).<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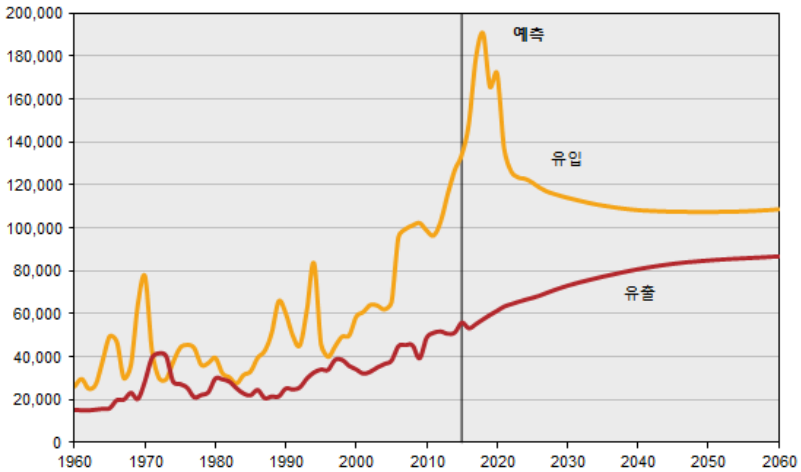
또한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 이데올로기와 가치관과 일상 문화 그리고 행위 등에 있어서 상이한 집단들이 형성되고, 이들 집단들 사이에 갈

4) 스웨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Aktuell-Pong/14505/Current-forecast/The-future-population-of-Sweden-20152060/273428/2016년 8월 15일 접속](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Aktuell-Pong/14505/Current-forecast/The-future-population-of-Sweden-20152060/273428/2016년_8월_15일_접속))

5) 2006-2010년 사이 노조 조직률 감소는 스웨덴 출신의 경우 5%, 외국 출신의 경우 9% 감소를 보여주었다. 즉, 스웨덴 출신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년 1%, 외국 출신의 경우는 매년 2% 정도의 노조가입률 하락을 보여주었다.

등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균열이 형성된다(Bartolini and Mair 1990; 215). 인종적으로 대단히 동질적인 사회였던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시장과 생활세계에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균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스웨덴 이민 추이와 2015년 이후의 예측(1960- 2060)



자료: SCB VALU 2014 - SVT exit poll parliamentary election

<표 1> “이민이 나라를 좋게 만들 것인가 나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직업별 응답

	2002 (스웨덴)	2002 (EU12)	2006 (스웨덴)	2006 (EU27)	2010 (스웨덴)	2010 (EU28)	2014 (스웨덴)	2014 (EU28)
경영관리	13.73	31.74	14.04	40.00	10.39	34.53	9.26	25.75
전문직	7.49	21.65	7.34	29.80	4.51	29.99	5.42	17.87
기술직	12.90	28.86	9.85	34.70	7.46	36.01	8.90	27.66
사무직	11.70	33.36	14.08	37.33	9.09	39.92	13.18	31.24
판매서비스	15.34	36.39	17.36	44.46	12.46	44.54	13.52	36.81
농업	29.79	44.20	9.09	40.95	18.92	45.46	15.38	36.92

숙련	29.55	40.92	23.86	42.95	22.31	47.89	16.99	38.06
준숙련	20.77	41.69	20.59	46.06	25.78	47.16	26.89	43.03
비숙련	21.85	40.91	20.00	44.80	22.11	45.34	22.12	41.31

자료: European Social Survey 2002, 2006, 2020. 2014년 자료를 이용한 필자 분석 결과  
참고) 숫자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로 나쁘게 만들 것이다(0)에서 좋게 만  
들 것이다(10)까지의 응답 중에서 0~4까지의 응답 비율이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에 서서히 이루어졌고, 난민 위기를 겪은 2015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EU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었다. 2002년과 2014년의 스웨덴의 이민에 대한 태도는 약간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늘었다. 그러나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숙련의 경우, 2002년 20.77%에서 2014년 26.89%로 7.12% 증가하였지만, 숙련 노동자들의 경우는 29.55%에서 16.99%로 오히려 12.56% 줄어들었다.

위와 같은 추세는 스웨덴 자체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6년 총선 출구조사에서 선거에서 이민/난민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4.8%였다. 반면, 55.5%의 유권자가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 54.2%의 유권자가 학교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하였다(Holmberg, Hernborn and Näsman, 2006: 24-25). 2010년 총선에서도 이민/난민 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25.5%로 2006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Näsman, Holmberg and Wännström, 2010: 25). 2014년 총선에서는 이민/난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8% 정도 늘어서 33.5%달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59%), 학교와 교육(59.5%)과 의료보장(54.5%) 이슈 등 다른 중요한 이슈에 비해서, 여전히 이민/난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유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Holmberg, Näsman and Gusfason, 2014: 23-26).

그러나 2014년 이후 이민/난민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이민/난민 문제는 스웨덴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민/난민 문제는 재정, 주택, 고용, 복지, 교육, 사회통합, 종교 갈등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난민 문제가 이민자 급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 이민 문제는 스웨덴 총선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했지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봄에 실시한 유럽연합 여론조사인 Eurobarometer는 이민 문제가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2016년 봄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민인 것으로 나타났고, 44%의 스웨덴 사람들이 이민을 가장 중요한 스웨덴의 이슈라고 보았다. 그 다음이 26%의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의료와 사회보장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복지였다. 이것은 EU 전체 회원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단히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EU 28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33%가 응답한 실업문제였던 반면, 이민은 28%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다.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식되었던 이민 문제가 2014년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표 2> 2016년 봄 스웨덴과 EU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이슈 (복수 응답)(%) (QA3a)

	스웨덴	EU28개국
이민	44	28
의료와 사회보장	26	26
교육	26	9
실업	24	33
환경	24	6
주택	15	8
범죄	11	10
경제 상황	9	19
테러	6	16
연금	5	13
세금	2	7
물가	1	13
정부 부채	1	13

자료: Eurobarometer 2016년 5월



### 3.3 스웨덴 민주당 지지 분석

<표 3>은 2014년 총선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 비율을 보여준다.<sup>6)</sup> 스웨덴 민주당 지지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5-55세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취업자보다는 실업자, 재교육을 받거나 병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서 높았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에서 지지가 더 높았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를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4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로 23.54%를 차지하였다.

주관적인 정치의식에 따른 스웨덴 민주당 지지를 살펴보면, 정치 불신이 높을수록,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다. 정치 불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1/3정도가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민/난민 문제가 투표에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 정치적 이념을 살펴보면, 중도 성향에서 스웨덴 민주당 높은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좌파보다는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스웨덴 민주당 지지 비율 (N= 12,191)

변수	항목	%
젠더	남성	9.83
	여성	5.93
연령	-34	6.60
	35-44	8.40
	45-54	8.80
	55-64	7.81
	65+	7.79
고용지위	취업	7.33
	재교육	13.22
	실업	12.00

6) 분석에 사용된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 자료는 2006년, 2010년, 2014년 8년간의 출구조사 자료이다. SND(Svensk Nationell Datatjänst), VALU 2006, 2010, 2014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퇴직	8.29
	병가	14.17
	가사노동	5.26
	학생	4.65
직업	화이트칼라 노동자	5.38
	화이트칼라 감독직	6.03
	화이트칼라 경영직	6.00
	블루칼라 노동자	7.77
	블루칼라 감독직	8.19
	농민	3.92
	자영업	7.24
	고용주	8.62
	비경제활동인구	6.11
정치 불신	매우 높음	1.59
	높은 편	3.34
	낮은 편	14.63
	매우 낮음	31.28
투표에서의 이민/난민의 중요성	매우 중요	8.58
	중요	9.18
	보통	8.70
	중요하지 않음	10.45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90
이념 성향	좌익	1.40
	어느 정도 좌익	4.75
	중도	15.01
	어느 정도 우익	8.20
	우익	11.21

여러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이러한 요인들과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sup>7)</sup> 모형 1은 인구학적인 요인인 젠더와 연령

7) 여기에 제시된 계수는 승산비(odds ratio)이다. 이것은 기존 정당을 지지한 경우(q) 대신에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p)의 승산(odds), p/q, 을 범주별로 비교한 값이다. 승산비가 1인 경우는 비교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서 멀어지는 경우,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승산비가 3인 경우나 1/3인 경우는 두 범주 간에 모두 3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Daniel A. Power and Yu

을 고려한 분석 모형이고, 모형 2은 모형 1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고용상의 지위, 직업과 노동조합 소속 여부와 유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분석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 3은 주관적인 정치의식만을 고려한 모형이다. 모형 1과 모형 2가 객관적인 분석 모형이라면, 모형 3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이민/난민에 대한 태도, 주관적으로 평가한 이념 성향 세 요인만을 고려한 주관적 정치의식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 4는 객관적인 요인들과 주관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 모형이다.

<표 4> 모형 1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보다 중년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모형 2)나, 주관적인 정치의식을 고려하였을 때도(모형 4), 그런 관계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학적인 변수의 설명력은 1~2%에 불과하여 스웨덴 민주당 지지 결정에는 대단히 미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보다 유의미하게 스웨덴 민주당을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상의 지위를 고려한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오스카르손과 뎀케르(Oskarson and Demker, 2013: 189)는 이것이 계급투표의 또 다른 형태이며,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는 노동자들에게 스웨덴 민주당이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조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나 스웨덴 노총(LO)에 가입한 노조원 사이에 스웨덴 민주당 지지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직 노조인 TCO와 전문직 노조인 SACO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형은 결정계수가 매우 낮아서 이들 변수들도 역시 민주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았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의 모형 3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 결정에 주관적인 정치의식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 정치의식 모형이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정치의식으로는

Xie(2000, ch.3)을 볼 것.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난민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정치적 이념’이 포함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경우와 비교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경우는 무려 42배 정도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낮은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경우와 비교해서,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19배 정도 더 높았다. 정부 신뢰도에 따라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대단히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민/난민 이슈를 얼마나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도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난민 이슈가 총선 투표에서 자신의 정당 선택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와 비교해서,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6.94499배 더 높았다. 이러한 점은 2014년 당시 이민/난민 이슈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는 아니었지만, 이민/난민 이슈가 적어도 상당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정치적 이념 성향도 스웨덴 민주당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한 유권자와 비해서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한 유권자는 무려 20배 정도 스웨덴 민주당을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와 약간 우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좌파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에 이해서 14배 정도 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표 4>의 스웨덴 민주당 지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진 점은 각 모형의 설명력이다. 인구학적 모형인 모형 1과 경제활동 모형인 모형 2의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주관적 정치의식 모형인 모형 3의 유사 결정계수( $R_2$ )는 .3236으로 모형 1과 모형 2의 유사 결정계수에 비해서 각각 26.7배 정도와 7배 정도 더 컸다. 주관적 정치의식 모형이 인구학적 모형과 인구 및 경제활동 모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모형 3에 객관적인 모형 2를 덧붙인 모형 4의 설명력은 3.7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가 스웨덴 민주당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서 취

업자와 실업자, 환자나 학생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직업이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정치의식이 개입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작용하여, 직업이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2014년 스웨덴 총선 스웨덴 민주당 지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 3	모형 4
상수		.05339***	.03961***	.00044***	.00014***
성별(여성)	남성	1.76257***	1.74303***		2.23762***
연령 (-34)	35-44	1.28840***	1.61571***		2.20000***
	45-54	1.34514**	1.73190***		1.881012***
	55-64	1.17379	1.44961**		1.63575**
	65+	1.14329	1.12630		1.53166***
직업 (화이트칼라 노동직)	화이트칼라 감독직		1.00514*		1.09205
	화이트칼라 경영직		.08654		.98328
	블루칼라 노동자		1.83246***		1.67663***
	블루칼라 감독직		2.28065***		1.78478**
	농민		1.42248		2.30607
	자영업		.96438		.82190
	고용주(1명이상)		.98725		.91700
	비경제활동인구		1.43064		1.32200
고용상지위 (취업)	고용프로그램참여		1.67506**		1.59801*
	실업		1.59159**		1.45185
	연금수령자		1.33456		1.22359
	질병		1.62131*		1.57182
	가내노동자		.55767		.42962
학생		.61695***		.81947	
노조 (미가입)	LO		.91810		1.21175
	TCO		.68350**		.95280
	SACO		.45386***		.57823**
정부 신뢰 (대단히 높음)	약간 높음			3.68113***	3.54120***
	약간 낮음			18.87524***	18.71686***
	매우 낮음			42.01280***	38.14727***
이민 및 난민의 중요성 (전혀	대단히 중요			6.94499***	7.49797***
	어느 정도 중요			.96248	1.032702
	보통			.50693*	.51234*
	별로 중요하지			.27448**	.23274**

중요하지 않음)	없음				
정치이념 (좌파)	어느 정도 좌파			5.08959***	4.87429***
	중도			14.67339***	14.52084***
	어느정도우파			13.44180***	14.52746***
	우파			17.87206***	19.93875***
LR chi2	80.84	274.40	1942.09	1940.73	
Pseudo $R_2$	.0121	.0462	.3236	.3610	
유의도: * < .05, ** < .01, *** < .001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분석 모형을 2006, 2010년과 2014년 세 시기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은 <표 4>에서 분석한 분석 모형들의 결정계수( $R_2$ )로 측정된 설명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분석 모형의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설명력의 변화는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강도를 보여준다.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는 2006년과 2014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학적 요인인 젠더와 연령의 설명력은 1~2%에 불과하였고, 설명력은 더 감소되었다. 노동시장 요인인 고용상의 지위, 직업과 노동조합원 지위의 설명력은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1%을 약간 넘는 설명력 증가를 보여주어,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젠더, 연령, 고용상의 지위, 직업과 노동조합원 지위 등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각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보여준다. <표 5>에서 두드러진 설명력 변화는 모형 3에서 나타났다. 2006년 모형 3의 결정계수는 .0948이었으나, 2010년 .2424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 .3236으로 더 증가하였다. 모형 3은 주관적인 정치의식 모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난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계수가 급격히 커진 것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 여부에 미치는 정치의식의 영향력이 더욱 지난 8년 동안 더욱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 급등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모형의 설명력 변화(2006-2014)

	2006	2010	2014
모형 1	.0275	.0134	.0121
모형 2	.0367	.0444	.0482
모형 3	.0948	.2424	.3236
모형 4	.1328	.2754	.3610

참고: 설명력의 측정은 Pseudo- $R_2$  값으로 이루어졌다.

#### 4. 결론

이 논문은 스웨덴 극우주의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형성 이후 스웨덴의 정치의 변화와 사회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성적인 정치 불신’ 속에서 이민/난민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정당에 불만을 품은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좌우 균열과는 다른 내국인/이민자 균열은 우익 민족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2015년 스웨덴으로의 이민/난민의 폭발적인 유입은 이민/난민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이민/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화시켰다.

결국, 스웨덴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2016년 7월 이민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나는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은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안으로 망명이 거부된 자는 주거와 일상적인 생활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안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부되지 않은 망명 신청자에게는 1년 내지 3년의 한시적 체류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의 합류는 3년 체류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하고, 1년 체류권자는 가족과의 합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법안이었다.<sup>8)</sup> 이것은 전통

8) 난민과 관련되어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유럽연합의 최저 기준을 받아들인 것으로 난민 수를 제한하는 난민 할당제와 25세 이하로 자활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고등학교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영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http://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6/04/proposal-to-temporarily-restrict-the-possibility-of-being-gr>

적인 이민/난민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스웨덴은 더 이상 관대한 이민의 나라가 아니다.

사회적 균열은 정치적 균열(political cleavage)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균열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조직에 의해서 대표되고, 선거 경쟁이나 집단적 시위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종교집단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하위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정당과 연계될 때도 사회적 균열은 쉽게 정치적 균열로 전환된다. 스웨덴의 기성 정당들이 이민/난민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균열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단일 이슈 정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난민 문제만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복지 쇼비니즘’ 혹은 ‘복지 민족주의’ 내세우는 독특한 극우정당으로 등장하였다.

2016년 유럽의 난민 위기 속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제도권 정치의 진입 장벽을 넘어서 기성 정당으로 변했다. 사회민주주의 헤게모니 하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과거 스웨덴의 정치적 전통은 2016년 들어서 종말을 고했다. 스웨덴 예외주의의 종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유럽 연합의 확대와 중동지역의 갈등으로 초래된 유럽으로서의 대량 이민이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화시키고 있다. 덴마크의 극우 정당인 덴마크 인민당(Dansk Folkeparti), 핀란드의 핀란드당(Perussuomalaise)과 더불어 스웨덴 민주당은 세계화 시대 복지국가와 극우 민족주의를 결합시킨 새로운 북유럽 극우주의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극우주의 대두의 또 한 축인 극우 이데올로기 공급자인 스웨덴 시민당과 당수인 오케손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것은 서베이 데이터 분석이 지니고 있는 한계라는 점에서, 향후, 스웨덴 민주당의 미디어 전략과 당의 이미지 형성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신광영. 2015.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6: 143-170.
- \_\_\_\_\_. 2015. "스웨덴 극우 정당의 사회적 기초" 『스칸디나비아 연구』 16: 99-126.
- 신정완. 2009.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금융위기: 원인, 진행경과와 스웨덴 모델에 미친 영향" 『스칸디나비아 연구』 10: 41-62.
- Aylott, Nicholas. 2008. "Softer But Strong: Euroscepticism and Party Politics in Sweden" in *Opposing Europe?: the comparative party politics of Euroscepticism*. Vol. 1, *Case studies and country surveys* ed. by Aleks Szczerbiak and Paul Tagg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81-200.
- Doeger, Frederik. 2014. "Sweden's Libya decision: A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ternational Politics* 51(2): 196-213.
- Egnell, Robert. 2016. "The Swedish Decision to Participate in Operation Unified Protector," *Political Rationale and International Consequences of the War in Libya*, ed. by Dag Henriksen and Ann Karin Larsson, pp. 174-191.
- Ellinas, Antonis A. 2010. *The Media and the Far Right in Western Europe: Playing the Nationalist Ca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lund, Peter. 1999. "The Swedish Banking Crisi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5(3): 80-97.
- Eurofound. 2014. *Labour Migration in the EU: Recent Trends and Policies*, Dublin: Eurofound.
- Hellstöm, Anders, Tom Nilsson and Pauline Stoltz. 2012. "Nationalism vs. Nationalism: The Challenge of the Sweden Democrats in the Swedish Public Deb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47(2): 186-205.
- Holmberg, Sören, Hans Hernborn and Näsman Per. 2006. *VALU 2006 - SVT exit*

-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06*, Svenska Nationell Datatjänst.
- Holmberg, Sören, Hans Hernborn and Gustafsson, Torbjörn. 2014. *VALU 2014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14*, Svenska Nationell Datatjänst.
- Johnson, Simon and Johan Ahlander. 2015. "Suppor for anti-immigration party surges," *Reuter* December 1, 2015.
- Jungar A. C. 2015. "Business as usual: Ideology and populist appeals of the Sweden Democrats" in *Populism in the shadow of Great Depression*, ed. by T Papps and H. P. Kresi, Colchester, UK: ECPR Press.
- Jungar, A. C. & A. Jupskås. 2015.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the Nordic region: A new and distinct party famil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7(3): 215-238.
- Kjellberg, Anders. 2011. *Kollektivavtalens täckningsgrad samt organisationsgrad hos arbetsgivarförbund och fackförbund*, Studies in Social Policy, Industrial Relations, Working Life and Mobility, Research Reports.
- Larsson, Stieg. 1991. "Swedish racism: the democratic way" *Race and Class* 32(3): 102-111.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 and Voter Alliance," *Party Systems and Voter Alliance* ed. by Seymour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in,
- Loxbo, Karl. 2010. "The Impact of the Radical Right: Lessons from the Local Level in Sweden, 2002-2006,"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3(3): 295-315.
- Lubbers, M., Gijsberts, M. & Scheepers, P. 2002. "Extreme Right-wing Voting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3), 345-78.
- Minkenberg, Michael and Bartek Pytlas. 2013. "Another kind of class voting: the working-class sympathy for Sweden Democrats," in *Class Politics and Radical Rights* ed. by Jen Rydgren, London: Routledge, pp. 173-189.

- Mudde, Cas.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ergaard, Anders. 2015. "Whither Swedish Exceptionalism? Concluding reflection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Critical Perspectives*, ed. by Magnus Dahlstedt & Anders Neergaard, London: Routledge, pp. 139-159.,
- Näsman Per, Holmberg Sören and Kent Wännström. 2016. *VALU 2010 - SVT exit poll survey parliamentary election 2010*, Svenska Nationell Datatjänst,
- Oja, Simon and Brigitte Mral. 2013. "The Sweden Democrats Came In from the Cold: How the Debate about Allowing the SD into Media Arenas Shifted between 2002 and 2010," *Right-Wing Populism in Europe: Politics and Discourse* ed. by Ruth Wodak, Majid KosraviNik and Brigitte Mral, London: Bloomsbury, pp. 277-292.
- Oskarson, Maria and Marie Demker. 2013. "Another kind of class voting: the working-class sympathy for Sweden Democrats," in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ed. by Jens Rydgren, London: Routledge.
- Pelinka, Anton. 2013. "Right-Wing Populism: Concept and Typology," in *Right-Wing Populism in Europe: Politics and Discourse*, ed. Ruth Wodak, Majid KhosraviNik and Brigitte Mral. London: Bloomsbury pp. 3-22.
- Pempel, T. J. 1990. *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wers, Daniel A. and Yu Xie. 2000. *Statistical Methods for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Przeworski, Adam. 2003. *States and Markets: A Primer of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den Lee, 2016. "Just how 'far right' are the Sweden Democrats?" *The Local* 2016년 10월 10일.
- Rothstein, Bo. 2014. "The End of Swedish Exceptionalism" *Foreign Affairs*

September 2014.

Rydgren, Jen. 2002. "Radical Right Populism in Sweden: Still and Failure, But for How Long?"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5(1): 27-56.

\_\_\_\_\_. 2007.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241-262.

\_\_\_\_\_. (ed.). 2013.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London: Routledge.

Rydgren, Jen and Patrick Ruth. 2011. "Voting for the Radical Right in Swedish Municipalities: Social Marginality and Ethnic Competit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4(3): 202-225.

Strömbäck, Jesper, Ann-Cathrine Junga and Stefan Dahlberg. 2016. "Sweden: No longer a European Exception," in *Populist Political Communication in Europe* ed. by Torl Aalberg, Frank Eser, Carsten Reinemann, Jesper Strömbäck, and Claes H. de Vreese, London: Routledge.

Sunnus, Milena. 2004. "Swedish Euroscepticism: Democracy, Sovereignty and Welfare," *European Studies: A Journal of European Culture, History and Politics*, 20(1): 193-205.

The Local. 2016. "Why Swedish Eurosceptics are hoping for Brexit," *The Local*, June 20, 2016.

Townsend, Riley M. 2015. *The European Migration Crisis*, Lulu.Com.

Widfeldt, Anders. 2008. 'Party Change as a Necessity: The Case of the Sweden Democrats'. *Representation* 44(3): 265-276.

\_\_\_\_\_. 2015. *Extreme Right Parties in Scandinavia*, London: Routledge.

<Abstract>

## Why Has the Far Right Grown Rapidly in Sweden?

Shin, Kwang-Yeong\*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of the rapid growth of Sweden Democrats, the extreme rightist party in Sweden, after it entered into the Risdag in 2006 for the first time. While Sweden Democrats proclaimed anti-immigration party as a main party principle from 1988 when it started, it failed to get sufficient votes for the seats in the Risdag. However, it succeeded in entering into the Risdag under the hostile reaction from the existing parties in 2010 under the condition of the high level of voters' distrust of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It could expand its social base to be the third largest party in the Risdag in 2014 in the crisis of migration in Europe. Unlike neo-liberal rightist parties, it mobilized the fear of the working class and getting large supports from it by invoking anti-immigration and proclaiming welfare chauvinism.

**Key Words:** Swedish far-right, Sweden Democrats, European immigration crisis, welfare chauvinism, immigration policy

---

\*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성명: 신광영  
소속: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mail: kyshin20@gmail.com

논문 접수일: 2016.11.9.

수정원고 접수일: 2016.12.14.

논문심사 완료일: 2016.12.6.

게재 확정일: 2016.12.14.

